

영암 출신 프로골퍼 유해란, 블랙 데저트 챔피언십 ‘정상’

최종합계 26언더파 262타…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

LPGA 시즌 첫 승…아메리카스오픈서 연승 도전

영암군 출신 프로골퍼 유해란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신설 대회인 블랙 데저트 챔피언십(총상금 300만달러)에서 1~4라운드 내내 선두를 놓치지 않은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을 차지했다.

유해란은 지난 5일(한국시간) 미국 유타주 아이빈스의 블랙 데저트 리조트 골프코스(파72·6629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이글 1개, 버디 6개를 합해 8언더파 64타를 쳤다.

최종 합계 26언더파 262타를 기록한 유해란은 공동 2위 에스터 헨젤라이트(독일), 인뤼닝(중국·이상 21언더파 267타)을 5타 차로 꺾고 LPGA 시즌 첫 승을 달성했다. LPGA 투어 개인 통산으로는 세 번째 우승이다.

지난해 9월 FM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차지했던 유해란은 이로써 8개월 만에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이번 시즌 LPGA 투어에서 한국 선수의 우승은 개막전인 2월 힐튼 그랜드 베케이션스 토너먼트 오브 챔피언십의 김아람, 3월 포드 챔피언십의 김효주에 이어 유해란이 세 번째다.

유해란은 이번 대회 초대 챔피언 자리에 오르면서 우승 상금 45만달러(약 6억3000만원)를 챙겼다.

이번 대회에서 유해란은 완벽한 경기력을 선보였다. 1번 홀(파4)부터 버디를 낚으며 상대적으로 출발을 한 유해란은 6번 홀(파4)과 7번 홀(파5)에서 연속 버디에 성공하며 안정적인 플레이를 이어갔다.

같은 조에서 된 2위 헨젤라이트는 전반에만 버디 5개를 잡으며 9번 홀(파5)까지 한 타 차로 추격했으나 유해란은 흔들리지 않았다.

유해란은 11번 홀(파4)에서 버디를 낚아 헨젤라이트를 두 타 차로 따돌렸다.

12번 홀(파4)에선 두 번째 샷이 그린 인근 벙커로 향했으나 환상적인 벙커샷으로 공을 홀에 붙이며 파 세이브에 성공했다.

위기를 극복한 유해란은 13번 홀(파5)에서 이글에 성공하며 우승에 췌기를 박았다.

호수를 가로지르는 과감한 티샷을 시도한 뒤 투온에 성공해 이글을 낚으며 헨젤라이트를 4타 차로 밀어냈다.

15번 홀(파3)에선 5번째 버디를 기록하며 2위 그룹을 멀찌감치 따돌렸고 마지막 18번 홀(파5)에서도 침착하게 버디에 성공하며 갤러리들의 축하를 받았다.

유해란은 이날 페어웨이 안착률 100%, 그린 적중률 83.3%의 정확한 샷을 선보였다. 퍼트는 27개

를 기록했다.

아울러 2라운드 9번 홀, 3라운드 11번 홀에 이어 3일 연속 이글을 적어내는 진기록을 썼다.

유해란은 LPGA 투어에 진출한 2023년부터 매해 꾸준한 성과를 냈다.

데뷔하던 해엔 월마트 NW 아칸소 챔피언십에서 첫 승을 따내는 등 6차례 톱10을 기록하며 신인왕을 차지했고, 지난해엔 FM 챔피언십 우승을 비롯해 13차례나 톱10에 오르며 절정의 기량을 과시했다.

올해엔 지난달에 열린 시즌 첫 메이저대회 셰브론 챔피언십에서 공동 6위를 차지했다.

당시 유해란은 3라운드까지 공동 선두를 달렸으나 마지막 4라운드에서 부진해 아쉬움을 남겼다.

한편 이마함과 이소미, 전지연, 최혜진은 나란히 13언더파 275타를 쳐 공동 12위로 대회를 마쳤다.

김효주는 이날 6타를 줄이면서 12언더파 276타로 임진희, 안나린 등과 공동 20위를 기록했다.

신인상을 노리는 일본의 다케다 리오는 18언더파 270타로 5위, 호주 교포 선수인 그레이스 김은 15언더파 273타로 9위에 올랐다.

한편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시즌 첫 승을 일군 유해란이 연속 대회 우승에 도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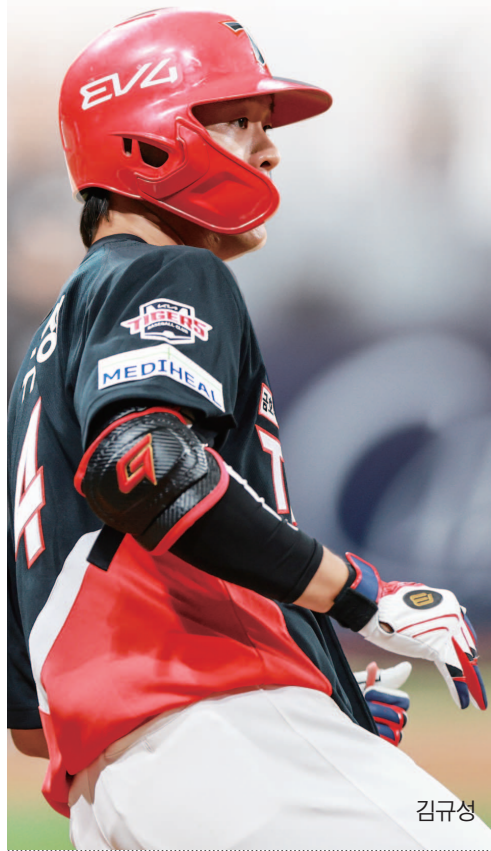
유해란은 9일(한국시간)부터 12일까지 미국 뉴저지주 저지시티의 리버티 내셔널 골프클럽(파72·6690야드)에서 열리는 LPGA 투어 미즈호 아메리카스오픈(총상금 300만달러)에 출전한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우승 트로피 든 유해란. 연합뉴스

‘김규성 대타 결승타’ KIA, 키움 5-3 제압



김규성



8회초 역전 적시타 폭발…김도현, 6이닝 3실점 역투

KIA타이거즈가 키움히어로즈를 꺾고 2연승을 달성했다.

KIA는 6일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2025 신한 SOL Bank KBO리그 키움히어로즈와의 경기에서 5-3으로 승리했다. 전날 키움에게 13-1 대승을 거뒀던 KIA는 이날 승리로 2연승을 달성했다.

KIA는 이날 타순을 박찬호(유격수)-위즈덤(1루수)-김도영(3루수)-최형우(지명타자)-김선빈(2루수)-오선우(좌익수)-한준수(포수)-정해원(우익수)-박정우(중견수)로 짰다.

선발 투수로는 김도현이 나섰다. 총 93개의 공을 던진 김도현은 6이닝 4피안타 5탈삼진 3실점으로 역투했다.

KIA는 1회에 선취점을 뽑아냈다. 1회초 1사 만루 상황 김선빈이 외야 좌측에 높이 뜨는 희생

플라이를 때려내면서 경기는 1-0이 됐다.

1회말에는 상대에게 2점을 내주며 역전을 당했지만, 2회초 다시 리드를 가져왔다.

1사 만루에서 위즈덤이 2타점 적시타를 터트렸다.

승부의 균형은 5회에 다시 맞춰졌다. 5회말 2사 2루에서 상대 카디네스가 우전 적시타를 때려내면서 점수는 3-3이 됐다.

7회까지 서로 득점없이 이어진 경기는 8회초에 승부가 갈렸다.

1사 1·2루에서 정해원 대신 김규성이 타석에 올라 역전 적시타를 폭발시켰다. 2사 2·3루 상황에서는 상대 폭투까지 나오면서 한준수가 홈에 들어왔다. 이후 KIA는 9회말까지 실점 없이 이닝을 마쳐내면서 5-3 승리를 따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양현종 180승·최형우 400홈런 ‘대기록 잔치’

양, 역대 두번째…첫 2100탈삼진
최, 6회초 3점 아차…리그 4번째

KIA타이거즈가 대기록을 연달아 쏟아냈다. KIA는 지난 5일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2025 신한 SOL Bank KBO리그 키움히어로즈와의 경기에서 13-1 대승을 거뒀다. 이날 승리로 3연패에서 벗어난 KIA는 양현종과 최형우의 대기록 달성으로 겹경사를 안았다.

이날 경기에서 선발로 출전한 양현종은 6이닝 5피안타 1실점으로 호투하며 KBO리그 역대 두 번째 180승을 거뒀다. 지난해까지 179승을 달성했던 양현종은 앞선 6차례 등판에서 단 1승도 거두지 못하는 아홉수를 겪었지만, 이날 등판에서 마침내 통산 180승을 달성했다. 210승을 거뒀던 송진우에 이은 역대 두 번째 기록이다.

또 양현종이 거둔 180승 중 178승은 선발승으로, 이는 리그 최다 선발승 기록이다. 양현종은 지난 2023년 9월 1일 통산 164번째 선발승을 작성하면서 163승의 송진우를 넘고 이 부문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양현종

최형우

특히 이날 경기 전까지 2097개의 탈삼진을 기록하고 있었던 양현종은 5개를 추가하며 KBO 역사상 첫 2100탈삼진 고지를 점령했다.

KIA의 ‘해결사’ 최형우 또한 이날 KBO리그 역대 4번째로 개인 통산 400홈런을 기록했다. 이날 4번 지명타자로 선발 출전한 그는 6회에 3점 아치를 그렸다.

KIA가 7-0으로 앞선 6회초 위즈덤의 볼넷과 김도영의 안타로 무사 1·3루가 됐다. 타석을 이어받은 최형우는 상대 조구 141km 직구를 그대

로 받아쳐 중앙 담장을 넘기는 3점포를 터트렸다. 올 시즌 5호 홈런이자 개인 통산 400번째 홈런이다.

이로써 최형우는 최정(SSG랜더스·497개), 이승엽(현 투산 베이스 감독·467개), 박병호(삼성라이온즈·412개)에 이어 역대 4번째로 400홈런 고지를 밟았다. 1983년생인 최형우는 올해 KBO리그에서 뛰는 야수 중 최고령임에도 여전히 기량을 과시하며 팀 타선을 이끌고 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광주시청 고승환·이재성·강다슬

아시아육상선수권 출격 메달 ‘정조준’

광주시청 육상팀 고승환(28)·이재성(24)·강다슬(33)이 ‘2025 구미 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 대표팀에 발탁됐다. 고승환은 남자 200m와 400m계주, 이재성은 남자 400m계주, 강다슬은 여자 400m계주에 출전한다.

‘2025 구미 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는 오는 27일부터 31일까지 경북 구미시민운동장에서 열린다. 45개 종목에 45개국 약 1200명이 출전할 예정이다.

대한육상연맹은 지난달 30일 경기력향상위원회를 개최, 이번 대회에 나설 대표 선수단 108명을 확정했다. 지난달 21~23일 진행된 대표선발전에서 개인 종목 1위를 선발했으며, 경기력향상위원회에서 메달 경쟁력 등을 고려해 선수를 추가 확정했다.

광주시청 고승환·이재성·강다슬은 한국 육상을 대표하는 선수다. 특히 고승환과 이재성은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육상 남자 400m계주 동메달리스트다.

고승환은 지난 2019년 육상 국가대표로 발탁됐고, 2022년부터 남자 200m 부문 국내 1위를 유지하고 있다.

고승환은 현재 남자400m계주 한국신기록 주인 공이기도 하다. 고승환은 지난해 6월 전국종별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서 김국영(광주시청), 이시몬(안양시청), 이용문(서천군청)과 호흡을 맞춰 38초68로 10년 만에 한국신기록(종전 38초74)을 갈아치웠다.

이재성은 400m계주에서 고승환과 호흡을 맞춘



고승환

이재성

강다슬

다. 이재성은 지난해 2024 대만 국제육상선수권대회 남자계주 금메달리스트다. 한국체대 시절 대학부를 휩쓸고 광주시청에 입단한 이재성은 성인무대에 적응하며 김국영, 고승환 등과 호흡을 맞추는 중이다.

이번 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 남자 400m계주는 고승환과 이재성, 나미다조엘린(예천군청), 서민준(서천군청), 이준혁(국군체육부대)이 한팀으로 나선다.

고승환과 이재성은 지난 3일 일본 시즈오카육상대회 남자 200m에 출전, 각각 20초67과 20초73으로 경기력을 점검하고 돌아왔다.

한국 여자 100m 대표주자 강다슬은 400m계주 선수로 발탁됐다.

부상을 털고 돌아온 강다슬은 대표선발전 여자부 200m에서 4위를 하면서 실전에 복귀했다. 지난해 전국체전에서 육상 1600m 혼성 계주 한국신기록을 세우기도 한 강다슬은 이번 아시아육상선수권 여자 400m계주에서 강다슬·김소은(가평군청), 김애영(시흥시청), 이은빈(해남군청)과 한 팀으로 호흡을 맞춘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광주은행 최미선, 전국양궁선수권 ‘은메달’

개인종합 1359점…광주시청 김수린, 30m·50m서 각각 금 1·은 1개

광주은행 탠텐양궁단 최미선이 올해 첫 대회에서 은메달을 따냈다.

최미선은 지난 2일 경북 예천진호양궁장에서 열린 대회 ‘제59회 전국 남·여 양궁 종별선수권대회’ 여자일반부 개인종합에서 1359점을 기록하며 유수정(현대백화점·1363점)에 이어 은메달의 주인공이 됐다.

최미선은 거리별 경기 60m에서도 348점을 최 유수정(349점)에 이어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퀼리피케이션으로 열린 이번 대회에서 광주시청 김수린도 금메달 1개와 은메달 1개를 따내며 국가대표의 면모를 과시했다.

김수린은 30m에서 356점을 쏜 금메달을 따내며 이어 50m에서는 335점으로 광예지(대전시체육회·337점)에 이어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순천대 김서하는 여자대학부에서 금메달 3개와 은메달 2개를 수확하며 파리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남수현(순천시청)에 이은 전남양궁 기대주로 떠올랐다.

김서하는 여자대학부 70m에서 337점으로 염혜정(경희대·337점)과 공동 1위를 차지한 데 이어 50m에서 338점을 기록하며 금메달의 주인공이 됐다. 오예진(광주여대)과 조수혜(한국체대)는 335점을 쏜 공동 2위를 기록했다.

송하중 기자